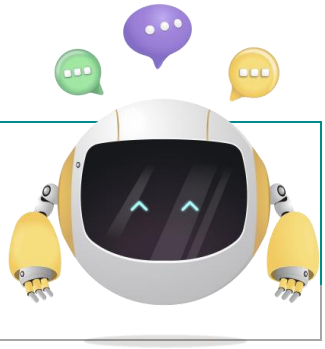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3.2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클라우드플레어,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 주축으로서 잠재력에 주목

클라우드플레어(NET.US):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 주축으로서 잠재력에 주목

- 클라우드플레어가 올해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앞두고 코인베이스와 제로해쉬가 발행 파트너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이라는 보도에 클라우드플레어 주가 상승
- 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기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간 결제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 이 딜이 성사되면 클라우드플레어와 코인베이스가 AI 에이전트 기반 트래픽의 핵심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도

마이크론테크놀로지(MU.US): 메모리, 커머디티에서 전략자산으로

- 메모리가 단순 커머디티가 아닌 AI 시대 핵심 전략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음. 더 긴 컨텍스트 윈도우, 더 깊은 추론 체인, 멀티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등 AI가 진화할수록 컴퓨트 아키텍처가 구조적으로 메모리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음. 그에따라 기존 LTA를 넘어서는 SCA가 등장. 메모리 밸류에이션의 상단이 막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 하지만 SCA를 통해 장기 실적 가시성이 올라올 경우 재평가가 가능. 기존 PC/모바일 사이클과 다르게 침투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 2분기 매출 238.6억, 조정 EPS 12.2 달러로 시장 예상치 197.4억, 8.9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조정 GPM도 74.9%로 시장 예상치 69.1%를 상회
- FY26 3분기 매출 327.5~342.5억, 조정 EPS 18.75~19.55 달러로 시장 예상치 225억, 11.7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조정 GPM 가이던스는 81% 내외를 제시

루멘텀(LITE.US): 중장기 성장 로드맵 제시

- 이번 OFC 2026에서 CY28~30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장기 전망을 제공. 특히 CY28 기준 분기 매출 20억 달러+@(신규 팹) 구조를 공유. 2년 이상을 내다볼 경우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월요일 GTC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구리와 광을 병행한다는 코멘트를 해서 광통신 섹터 전체가 약했음. 하지만 OFC에서 루멘텀이 제시한 것은 28년 이후 Scale-up 랙 내부까지 광이 구리를 대체 할 수 있다는 것. 젠슨 황의 코멘트도 구리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장기적으로는 Scale-out을 넘어 Scale-up까지 광이 쓰일 것이라고 얘기함. 현재 주력 제품인 EML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는 여전하며, Scale-out, up, OCS 같은 신규 성장 동력이 점점 가속화 되는 구간. 내러티브에서 넘버스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Capex가 유지될 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장기 TAM 및 재무 모델 업데이트

- 커버 가능한 TAM은 현재 약 180억 달러에서 5년 내 9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 Sacle-out, up, OCS 모두 2030년까지 새로 생기는 시장
-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인 8.05억 달러 대비, 9~12개월 내 분기 12.5억 달러(OPM ~35%), 18~24개월 내 20억 달러(OPM 40%) 달성을 타겟으로 제시. 내부적으로는 각각 9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나, 공급망 불확실성을 감안해 3개월 버퍼를 추가
- 분기 20억 달러 기준 매출 구성은 OCS·CPO·트랜시버가 60%, EML 등이 40%
- 신규 팹인 그린즈버러 관련 매출은 CY28 이후이므로 해당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음

AI & 보안: 사이버보안 Top 3 종목 점검 & 전망

사이버보안 시장 동향

- AI 기업의 보안 기능 출시로 AI의 보안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AI 보안 기능과 보안 통합 사업자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
- AI 보안 영역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보안 통합 플랫폼 대표 사업자가 가진 강점과 기반을 고려하면 AI 보안의 대체 가능성 낮아

주요 종목 실적 점검 & 전망

- 팔로알토: 사이버아크, 크로노스피어 인수 이후 과도기 고려하여 FY26년 연간 가이던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 단기적으로 인수 영향에 대한 경계심 높으나 보안과 모니터링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 더욱 높일 것
- 크라우드스트라이크: IT대란 영향을 마무리 짓고 FY26년 하반기에 성장 반등 본격화, FY27년에 성장 모멘텀 강세 지속 전망. AI로 주력인 엔드포인트 보안 2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 달성. FY27년 Beat & Raise 속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선전 이끌 것
- 클라우드플레어: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트래픽 폭증의 직접적인 수혜자. FY26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29%)가 시장 기대치(26%) 크게 상회, Beat & Raise 패턴 고려하면 가이던스 보다 높게 달성하며 전년대비 성장 가속화 전망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AI 칩 누적 수주 1조 달러 전망 제시

- 젠슨 황 CEO는 GTC 2026 키노트에서 Blackwell 및 Vera Rubin 세대 칩의 누적 수주 규모가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2026년까지 5,000억 달러 전망을 두 배로 상향한 수치

알파벳(GOOGL.US): 개인화 AI 기능 'Personal Intelligence' 미국 전체 무료 사용자로 확대

- Google이 기존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던 Personal Intelligence 기능을 미국 내 모든 무료 사용자로 확대한다고 발표
- 이 기능은 Gmail, Google Photos 등 Google 생태계 전반의 개인 데이터를 연결해 Gemini AI의 응답을 맞춤화하는 것으로, Search의 AI Mode, Gemini 앱, Chrome 내 Gemini에서 이용 가능

마이크로소프트(MSFT.US): Copilot 조직 통합 및 경영진 역할 전환

- Microsoft가 그간 분리 운영해 온 소비자용·기업용 Copilot 엔지니어링 조직을 통합하고, 전 Snap 임원 Jacob Andreou를 EVP로 승격해 통합 Copilot 경험을 총괄하게 함
- AI 부문 CEO인 Mustafa Suleyman은 Copilot 제품 일선에서 물러나 자체 프론티어 모델 개발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 연구에 집중하게 되며, 향후 3~5년간 원가(COGS)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특화 모델 계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메타(META.US): AI 올인 전략의 명암

- Meta가 AI 중심의 전면적 사업 재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프라 측면에서는 네덜란드 AI 클라우드 기업 Nebius와 5년간 최대 2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120억 달러의 전용 컴퓨팅 용량과 150억 달러의 추가 가용 용량으로 구성되며 Nvidia의 최신 Vera Rubin 칩 기반 대규모 배포가 최초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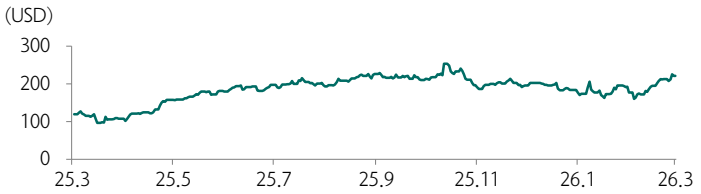
오픈AI(비상장): PE 공동 투자로 100억 달러 규모 엔터프라이즈 JV 추진

- OpenAI가 TPG, Bain Capital, Brookfield Asset Management, Advent International 등 주요 사모펀드(PE)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

클라우드 플레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사이버보안
시가총액(십억달러)
78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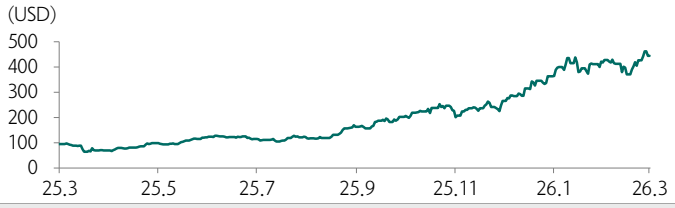
클라우드 플레어(NET.US):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 주축으로서 잠재력에 주목

- 클라우드플레어가 올해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앞두고 코인베이스와 제로해쉬가 발행 파트너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이라는 보도에 클라우드플레어 주가 상승
- 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기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간 결제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 이 딜이 성사되면 클라우드플레어와 코인베이스가 AI 에이전트 기반 트래픽의 핵심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도
- 클라우드 플레어와 코인베이스는 AI 에이전트/머신 간 결제 인프라 추진을 위해서 이미 협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 에이전트용 인터넷 결제 표준인 x402 프로토콜 확산을 위해 2025년 9월에 x402재단을 설립
- x402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가 중개자 없이 즉각적으로 디지털 자원(데이터, API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
- 클라우드플레어는 'NET Dollar' 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계획을 2025년 9월에 발표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 현재 코인베이스와 제로해쉬가 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파트너를 놓고 경합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출시 임박설이 힘을 얻고 있음
- 클라우드플레어 관점에서 AI 에이전트 결제 이슈의 핵심은 인터넷 트래픽, 보안 영역을 넘어서 에이전트 상거래 인증, 결제 인프라 계층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510

최근 주가 추이



마이크론테크놀로지(MU.US): 메모리, 커머디티에서 전략자산으로

- 메모리가 단순 커머디티가 아닌 AI 시대 핵심 전략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음. 더 긴 컨텍스트 윈도우, 더 깊은 추론 체인, 멀티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등 AI가 진화할수록 컴퓨트 아키텍처가 구조적으로 메모리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음. 그에따라 기존 LTA를 넘어서는 SCA가 등장. 메모리 밸류에이션의 상단이 막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 하지만 SCA를 통해 장기 실적 가시성이 올라올 경우 재평가가 가능. 기존 PC/모바일 사이클과 다르게 침투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 2분기 매출 238.6억, 조정 EPS 12.2 달러로 시장 예상치 197.4억, 8.9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조정 GPM도 74.9%로 시장 예상치 69.1%를 상회
- FY26 3분기 매출 327.5~342.5억, 조정 EPS 18.75~19.55 달러로 시장 예상치 225억, 11.7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조정 GPM 가이던스는 81% 내외를 제시

SCA(Strategic Customer Agreements) 도입

- 기존 LTA(장기 공급 계약)와 달리, 다년간 구체적 물량 커밋먼트를 포함하는 SCA 계약을 고객과 체결 중이며, 최초로 5년짜리 계약도 성사됨
- 이는 메모리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도 공급 확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커밋먼트를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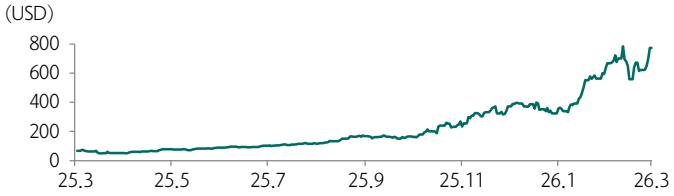
수급 미스 매치 지속

- DRAM·NAND 모두 CY26 비트 수요가 공급에 의해 제약되고 있으며, 이 타이트한 수급은 CY26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 강조
- 공급 제약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1) 클린룸 절대 부족 + 긴 건설 리드타임, 2) HBM 비중 상승에 따른 conventional DRAM 공급 잠식, 3) 노드 전환에 따른 bits/wafer 성장률 둔화, 4) NAND 클린룸의 DRAM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
- FY26 Capex 전망을 기존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FY27에는 건설 관련 Capex만 YoY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제시. 하지만 신규 팹(Idaho, Tongluo, 싱가포르)의 의미 있는 공급 기여는 모두 FY28 이후이며, 업계 전반적으로 주요 DRAM 업체의 클린룸 제약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루멘텀

상장 국가
미국
산업
광통신
시가총액(십억달러)
52

최근 주가 추이



루멘텀(LITE.US): 중장기 성장 로드맵 제시

- 이번 OFC 2026에서 CY28~30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장기 전망을 제공. 특히 CY28 기준 분기 매출 20억 달러+@(신규 팹) 구조를 공유. 2년 이상을 내다볼 경우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월요일 GTC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구리와 광을 병행한다는 코멘트를 해서 광통신 섹터 전체가 약했음. 하지만 OFC에서 루멘텀이 제시한 것은 28년 이후 Scale-up 랙 내부까지 광이 구리를 대체 할 수 있다는 것. 젠슨 황의 코멘트도 구리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장기적으로는 Scale-out을 넘어 Scale-up까지 광이 쓰일 것이라고 얘기함. 현재 주력 제품인 EML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는 여전하며, Scale-out, up, OCS 같은 신규 성장 동력이 점점 가속화 되는 구간. 내러티브에서 넘버스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Capex가 유지될 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음

CAPA 추가 확장

- CY25Q4 대비 CY26Q4까지 InP 생산 규모를 추가 50% 확대할 계획. 그럼에도 lane 수 기준 시장 수요가 CAGR 85%로 증가하면서 현재 시장 대비 25~30%의 공급이 부족하며, 수급 미스매치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
- 이에 대응해 Qorvo의 그린즈버러(노스캐롤라이나) 팹 인수를 공식 발표. 해당 팹은 이미 클린룸·인력·운영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2028년부터 출하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해당 팹을 통한 최대 연간 매출은 약 50억 달러를 예상. 그린즈버러는 UHP(초고출력) 레이저 전용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4인치/6인치 호환 라인으로 설계

신규 성장 동력 이상 무

- Scale-out용 CPO는 현재 sole source로 출하 중이며, 예상보다 고객 수용도가 높아 추가 백로그를 확보. CY26Q4에 첫 분기 1억 달러 매출 달성 후, CY27H1에 수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이행할 계획. 추가 고객 확보를 위해 ELS(External Light Source) 턴키 모듈을 제공할 예정. ELS 탑재 시 고객당 매출이 약 2배로 증가하나 마진은 소폭 하락, 다만 회사 전체 GPM 타겟 상회 수준은 유지
- Scale-up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을 공유. Phase 0(현재~2027)은 랙 내부 구리 유지 + scale-out CPO, Phase 1(2027~2028)은 랙간 광학 연결로 scale-out 대비 3~4배 수요 증가, Phase 2(2028~2030+)는 랙 내부까지 광학 침투로 lane 수 기준 10배 확대를 전망. CY27H2부터 scale-up 출하 시작 예정이며, 400G/lane 시대에는 구리의 거리·전력·비용 한계가 본격화되어 광학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 구글 제외 모든 하이퍼스케일러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OCS 사업에서 기존 3개 고객 중 1곳과 멀티이어, 멀티빌리언달러 규모의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 CY26 하반기 4억 달러 출하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CY27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장기 TAM 및 재무 모델 업데이트

- 커버 가능한 TAM은 현재 약 180억 달러에서 5년 내 9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 Sacle-out, up, OCS 모두 2030년까지 새로 생기는 시장
-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인 8.05억 달러 대비, 9~12개월 내 분기 12.5억 달러(OPM ~35%), 18~24개월 내 20억 달러(OPM 40%) 달성을 타겟으로 제시. 내부적으로는 각각 9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나, 공급망 불확실성을 감안해 3개월 버퍼를 추가
- 분기 20억 달러 기준 매출 구성은 OCS·CPO·트랜시버가 60%, EML 등이 40%
- 신규 팹인 그린즈버러 관련 매출은 CY28 이후이므로 해당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음

AI & 보안

사이버보안 Top 3 종목 점검 & 전망: 구조적 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

사이버보안 시장 동향

- AI 기업의 보안 기능 출시로 AI의 보안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AI 보안 기능과 보안 통합 사업자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
- AI 보안 영역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보안 통합 플랫폼 대표 사업자가 가진 강점과 기반을 고려하면 AI 보안의 대체 가능성 낮아

보안 시장 '벤더 통합' 추세 강화

- 기업이 전체 비용 감축을 위해 여러 보안 제품을 통합으로 구매하는 '벤터 통합' 추세 강화 최근 분기 실적에서 뚜렷하게 입증
- 팔로알토는 110건의 순신규 플랫폼화 달성, 4분기 제외 최고치 경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6개 이상 모듈 채택 비중 50%까지 상승

주요 종목 실적 점검 & 전망

- 팔로알토: 사이버아크, 크로노스피어 인수 이후 과도기 고려하여 FY26년 연간 가이던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 단기적으로 인수 영향에 대한 경계심 높으나 보안과 모니터링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 더욱 높일 것
- 크라우드스트라이크: IT대란 영향을 마무리 짓고 FY26년 하반기에 성장 반등 본격화, FY27년에 성장 모멘텀 강세 지속 전망. AI로 주력인 엔드포인트 보안 2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 달성. FY27년 Beat & Raise 속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선전 이끌 것
- 클라우드플레어: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트래픽 폭증의 직접적인 수혜자. FY26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29%)가 시장 기대치(26%) 크게 상회, Beat & Raise 패턴 고려하면 가이던스 보다 높게 달성하며 전년대비 성장 가속화 전망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AI 칩 누적 수주 1조 달러 전망 제시

- 젠슨 황 CEO는 GTC 2026 키노트에서 Blackwell 및 Vera Rubin 세대 칩의 누적 수주 규모가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2026년까지 5,000억 달러 전망을 두 배로 상향한 수치
- 핵심 메시지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도래로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Nvidia가 GPU 중심의 학습 인프라를 넘어 추론 최적화 풀스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Nvidia는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서 CPU가 병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독립형 Vera CPU를 Meta 데이터센터에 배치하는 등 Intel·AMD의 본거지인 서버 CPU 시장에 본격 진입. 또한 Groq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Groq 3 LPU(Language Processing Unit)를 공개해 추론 전용 칩 라인업을 갖추었고, Vera Rubin 플랫폼, BlueField-4 스토리지 랙, Spectrum-6 네트워킹 랙을 통합하여 사전학습부터 에이전틱 추론까지 아우르는 랙 단위 AI 슈퍼컴퓨터 구조를 제시
- 또한 OpenClaw 기반의 오픈소스 에이전트 플랫폼 NemoClaw, 자율주행 시스템 Alpamayo, 우주 데이터센터용 칩 개발 계획, 그리고 차세대 Feynman 아키텍처 로드맵까지 공개하며, Nvidia가 단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인프라 전 계층을 수직 통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

알파벳(GOOGL.US): 개인화 AI 기능 'Personal Intelligence' 미국 전체 무료 사용자로 확대

- Google이 기존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던 Personal Intelligence 기능을 미국 내 모든 무료 사용자로 확대한다고 발표
- 이 기능은 Gmail, Google Photos 등 Google 생태계 전반의 개인 데이터를 연결해 Gemini AI의 응답을 맞춤화하는 것으로, Search의 AI Mode, Gemini 앱, Chrome 내 Gemini에서 이용 가능
- 예컨대 타이어 매장에서 차량 규격을 묻는 단순 질문을 넘어, Google Photos에 저장된 가족 로드트립 사진을 인식해 사계절용 타이어를 추천하거나, Gmail의 호텔 예약 내역과 과거 여행 사진을 바탕으로 가족 취향에 맞는 여행 일정을 자동 제안하는 방식
- Google은 Gemini가 사용자의 Gmail 수신함이나 Photos 라이브러리를 직접 학습하지 않으며, 특정 프롬프트와 모델 응답에 대해서만 학습한다고 강조. 또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 상태로 사용자가 직접 연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마이크로소프트(MSFT.US): Copilot 조직 통합 및 경영진 역할 전환

- Microsoft가 그간 분리 운영해 온 소비자용·기업용 Copilot 엔지니어링 조직을 통합하고, 전 Snap 임원 Jacob Andreou를 EVP로 승격해 통합 Copilot 경험을 총괄하게 함
- AI 부문 CEO인 Mustafa Suleyman은 Copilot 제품 일선에서 물러나 자체 프론티어 모델 개발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 연구에 집중하게 되며, 향후 3~5년간 원가(COGS)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특화 모델 계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개편은 Copilot의 뚜렷한 소비자 시장 열세가 때문임. Sensor Tower 기준 2월 Copilot 앱 DAU는 600만 명에 불과해, ChatGPT 4.4억 명, Gemini 8,200만 명은 물론 3월 기준 Claude의 9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M365 Copilot 유료 이용자도 전체 Office 구독자의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음
- CEO Nadella는 사내 메모에서 AI가 질문 응답 단계를 넘어 다단계 태스크를 자율 실행하는 에이전틱 시대로 진입했다며 조직 경계를 시스템 아키텍처와 제품 형태에 맞춰 재편한다고 설명

메타(META.US): AI 올인 전략의 명암

- Meta가 AI 중심의 전면적 사업 재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프라 측면에서는 네덜란드 AI 클라우드 기업 Nebius와 5년간 최대 2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120억 달러의 전용 컴퓨팅 용량과 150억 달러의 추가 가용 용량으로 구성되며 Nvidia의 최신 Vera Rubin 칩 기반 대규모 배포가 최초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
- 에이전틱 AI 분야에서는 작년 말 약 20억 달러에 인수한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Manus가 데스크톱 앱을 출시하며, 기존 클라우드 전용에서 로컬 디바이스로 에이전트 실행 범위를 확장. 'My Computer' 기능을 통해 로컬 파일 관리, 앱 제어, 코딩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어, OpenClaw 열풍으로 촉발된 데스크톱 AI 에이전트 경쟁에 직접 뛰어듦
- 비용 상쇄 수단으로는 전체 인력의 약 20%, 최대 15,000~1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메타버스 사업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감. Quest VR 헤드셋에서의 Horizon Worlds 접근이 6월 15일부로 완전 종료되며, 모바일 앱으로만 축소 전환 예정. Horizon Worlds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수십만 명 수준을 넘기지 못했고, Reality Labs 부문은 작년 4분기에만 60.2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누적 8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쌓아 왔음. 이미 올해 초 Reality Labs에서 1,000명 이상을 감원하고 VR 게임 스튜디오를 폐쇄한 바 있음

오픈AI(비상장): PE 공동 투자 100억 달러 규모 엔터프라이즈 JV 추진

- OpenAI가 TPG, Bain Capital, Brookfield Asset Management, Advent International 등 주요 사모펀드(PE)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

- PE 투자자들이 약 40억 달러를 출자하고 지분 및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는 구조로, OpenAI 앱 부문 CEO Fidji Simo는 이를 자사 기술의 "배포 조직(deployment arm)"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번 JV의 전략적 핵심은 PE 펀드들이 보유한 수천 개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일시에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기존의 건별 엔터프라이즈 영업 사이클을 우회하는 대량 유통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 현재 OpenAI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총 연환산 매출 25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Anthropic 역시 Blackstone, Permira, Hellman & Friedman과 유사한 PE 기반 JV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양사 간 PE 파트너 확보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AI 산업이 모델 개발 단계를 넘어 기업 현장 배포(deployment)라는 수익화 단계에 진입 중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3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